

01 교회소식

책으로 전하는 주님 사랑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생명의 말씀을 책으로 엮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 발간해 전 세계 영혼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_ 팔복 시리즈 5

공활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공활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며, 연약함을 강건케 해 주신다.

03 기획특집

믿음의 반석을 넘어 영으로!

신앙 체크리스트를 통해 믿음의 반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와 신속히 영으로 들어가는 비결을 알아본다.

04 간증

“기도로 능력자가 됐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해 영의 마음을 이뤘다는 오세영 권사 간증.

# 만민뉴스

제601호 2013년 9월 2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변화와 생명을 낳는 이재록 목사 다국어 신앙서적

유엔 공용어를 비롯해 인도 오디아어 등 희귀어를 포함, 57개 언어로 발간해



지난 8월, 독일 코넬리우스 출판사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 저서 『천국』(하)를 발간해 『천국』(상)에 이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라인하르트 코넬리우스 대표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자세히 묘사한 이 책은 독일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발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넬리우스 출판사는 독일의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의 탄생지로 유명한 독일 중동부 작센 안할트 주 소재의 저명 기독교 출판사이다. 이처럼 이재록 목사의 다국어 신앙서적은 전 세계 곳곳에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요즘 같은 출판계의 불황 속에서도 이 목사의 대표 저서 『십자가의 도』는 희귀어로도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으며 오지 선교에도 큰 몫을 감당하고 있다.

이미 유엔 지정 6대 공용어인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는 물론 히브리어 등으로 발간됐으며 올해만 해도 이란의 페르시아어, 인도 오디아어, 베트남어, 세르비아어, 보스니아어 등 17개 언어가 추가돼 총 54개 언어로 발간됐다.

이 외에도 설교모음, 방송설교집, 강해집, 성도간증집, 칼럼모음, 신앙에세이, 구역공과 교재, 아동교재, 학생교재 등 88종의 한

국어 저서와 57개 언어로 280종의 다국어 저서가 발간됐다.

또한 대만의 저명 기독교 출판사인 천은 출판사, 말레이시아 만민 출판사를 중심으로 발간된 중국어 저서는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 화교권에 유통돼 큰



왼쪽부터 베트남어, 크로아티아어, 세르비아어, 보스니아어, 캄보디아어, 쿠르드어, 오디아어, 페르시아어, 태국어, 조지아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 4가지 조건에 대해 전하는 이재록 목사의 『십자가의 도』는 54개 언어로 발간돼 해외 곳곳에 유통되고 있다.

호응을 얻고 있다. 말레이시아 쟁쟁밍 성도는 “『권능』 책에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며, 권능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권능의 차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권능의 빛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지요.”라며 놀라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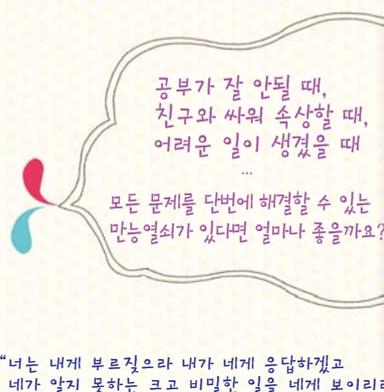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e-book) 발간도 빼놓을 수 없다.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45개 언어로 260종이 발간돼 인터넷 교보문고, 리디북스, 아이북스스토어, 아마존 킨들 등을 통해 꾸준히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이재록 목사 신앙서적에 대해 전 세계 독자들이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것은 영적 갈급함을 속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는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인들마저도 막연하게 알고 있는 천국, 지옥의 실존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에 대해 확실하고 명쾌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며, 성경 난해구절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 목사의 저서 전반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담겨 있어 전 세계 1만여 지·협동교회 성도뿐 아니라 수많은 독자의 믿음을 굳건히 해 주고 있다.

인도 산틸라 성도는 “『천국』 책에서 천국의 삶은 매우 황홀하며, 상상 이상의 장엄한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해 알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만 합니다. 또 『믿음의 분량』 책에서 이재록 박사님은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각 다른 천국 처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아동교재\_ 주니어 Bible Study 3  
 ‘하늘 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발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예레미야 33:3)

미취학 아동을 위한 키즈 Bible Study 2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장’





당회장 이재록 목사

#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축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7)

공홀의 사전적 의미는 '가없게 여긴다, 불쌍하게 생각한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홀은 '누가 범죄하거나 자신을 힘들게 할 때, 중심에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마음'이지요. 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양선의 마음과 비슷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차원입니다.

양선은 '악이 전혀 없으며 오직 선만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양선의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더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공홀이지요. 진정 공홀히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인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 팔복 중에 다섯 번째 복에 대해 증거하겠습니다.

### 1. 한없는 용서의 공홀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 가는 심지도 꺾지 아니하는 양선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는 더한 사랑으로 용서의 공홀을 베푸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즉시 징벌하지 않고, 어찌하든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같이 미워하고 다투며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

님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꺼져 가는 심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진리대로 살지 못한다 해도 즉시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아직 온전치 못해 범죄하는 사람이라 해도 어찌하든 성령으로 깨우치고 진리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지요.

이러한 용서의 공홀은 하나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무서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또 다시 죄를 짓는지요. 하나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즉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공홀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키면 동이 서서 먼 것같이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지요.

### 2. 사랑을 담은 징계의 공홀

'징계'는 용서와 반대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징계의 공홀은 미움이나 정죄함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상대가 변화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말씀한 대로 이 징계의 공홀 역시 하나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 돌아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러한 징계가 없다면 구원받은 후에도 다시 '세상이 좋다'며 어둠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가는 것을 지켜 보고만 계시지 않고, 징계를 통해 돌아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령, 자녀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다고 무조건 때리지는 않을 것입니

다. 왜 그 행동이 나쁜 것인지 알려 주고, 자녀가 중심에서 누워치도록 부드럽게 타이르지요. 그러나 자녀가 말로만 회개하고 계속해 범죄한다면 부모님은 마음이 아프더라도 징계의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더 이상 빛나가지 않도록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키게 하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같은 징계라도 사랑이 없으면 공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물건을 훔쳤다고 합니다. 아이가 마음 중심에서 용서를 빈다면 선한 사람은 공홀히 여겨 용서해 줍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헐기를 내고, 아이를 책망하거나 심지어 용서를 빌어도 처벌을 요구하지요. 또한 처벌하지 않는다 해도 잘못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것은 공홀이 아닐뿐더러, 결코 상대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비록 상대가 잘못을 했다 해도 그 사람의 입장과 장래를 생각해 사랑으로 징계할 때라야 징계의 공홀에 속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형제가 범죄했을 경우, 진리로 권고하고 징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마 18:15~17).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사자에게 사랑으로 권면해 돌아키게 해야 합니다. 만일 권면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의 윗분에게 말해 돌아키게 해야지요.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알려져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대로 하되 어떤 범죄라 할지라도 사람을 판단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징계를 한다 해도 사랑의 공홀을 베풀어야 우리도 하나님께 공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올바른 구제의 공홀

믿음의 형제가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말로만 안타까워하고, 행함이 없다면 공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제는 형제가 어려울 때 내 것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16절에 "만일 형

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혹자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나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자녀가 굶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내 자녀와 같이 행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렇다고 누가 어렵다고 해서 무턱대고 구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범죄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제하거나,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구제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구제는 축복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요. 이 외에도 공홀을 믿음의 형제뿐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 4.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홀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과연 어떠한 축복이 임할까요? 설령 자신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 해도 용서하고 공홀히 여기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수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서 공홀히 여기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공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부요하고 강건한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공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며, 연약함을 강건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홀히 여기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공홀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공홀을 이루고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위로를 주는 자가 되어 사랑과 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공홀히 여기심을 받으며 영원히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공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사백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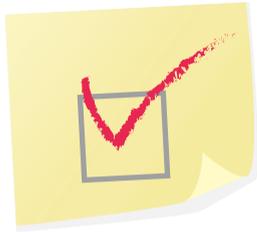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으로 들어가기 위한



# 신앙 체크리스트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마태복음 7:24~25)

## 아직 믿음의 반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순종한다.
- 아직도 험기가 있고 자기 생각과 틀이 강해 자기주장을 꺾지 않는다.
- 금식하며 기도도 하지만 감정을 버리지 못해 화평하지 못하고 변개함이 있다.
- 겉으로는 웃으며 선한 모습이지만 속에는 여전히 감정이 있다.
- 오랫동안 일꾼으로 충성하고 헌신했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이루지 못했다.
- 자기가 볼 때 선하다 하는 틀이 강하다.
-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지 않고 불편함, 서운함, 실망감 등이 남아 있다.
-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명심해 지속하는 힘이 부족하다.
- 열심히 기도하지만 감정이 있고 자기가 좋은 것만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 자기 보기에 옳다면, 자기 생각에 진리라면 바꾸지 않는 강한 틀이 있다.
- 핑계대거나 변명하려는 마음이 있다.
- 나는 안 된다는 심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 생각하는 바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분야가 많아 영적인 사랑을 놓친다.
-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 스스로 착하다 생각하는 것이 있다.
- 육체의 결여가 있다.
- 아직 불편한 감정이나 육의 모습들이 남아 있다.
- 자기가 좋은 것, 자기의 생각과 성격에 맞는 것만을 주장한다.
- 자기 생각 가운데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
- 육의 정에 이끌리는 마음이 있다.
- 간사함이 남아 있어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이룬다.
- 아직 들레고자 함과 자기 자랑의 마음이 있다.
- 선의 틀이 깨어지지 않고 아직 간사함이나 비경함도 있다.
-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를 사랑해 영적인 사랑이 부족하다.
- 자기 생각을 동원해 불순종하거나 불편함이 있다.
- 주변 사람들을 이해해 주고 사랑으로 품어 주는 것이 부족하다.
- 성격의 틀을 깨뜨려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변에 기쁨과 위로를 줘야 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영을 낳으며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는 것이다.

밭에서 막 파온 수박을 비유로 든다면 수박 표면에서 흙과 이물질을 다 털어낸 상태를 '믿음의 반석'이라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 안에 굳건히 서야 (마 7:24) 하나님 자녀로서 비로소 성결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러 어떤 악을 행하거나 남에게 해를 주는 모습은 없지만 아직 본성과 기(氣) 속에 남아 있는 모든 악의 모양을 버려야 영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수박 껍질을 모두 제거하고 내용물만 남은 상태를 '영'이라 할 수 있다. 영의 단계에 들어가면 무의식중이라도 악이 나오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 천국을 소망하기에 주님 품에 안기기 원하지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기꺼이 지고자 한다.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고 자 하기에 자신을 미워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마음에 품고 사랑한다.

이러한 영의 사람이 되려면 일단 믿음의 반석을 넘어야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반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단계에 신속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13년 전국 기관장 교육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

## 신속히 영의 단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자기 자신의 성격과 기 속에 갖고 있는 욕심, 사심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며 다가가야 한다.
- 성장 배경과 자라온 환경 속에 만들어진 강한 성격의 틀을 깨뜨리고 철저히 낮아져야 한다.
-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
- 오직 순종의 마음으로 성격의 틀을 깨뜨려 나왔으나 더 낮아져 섬기며, 교만의 틀까지도 온전히 깨뜨려야 한다.
- 불같은 기도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쌓여야 한다.
- 기 속에 있는 악의 모양을 철저히 벗어버려야 한다.
- 본인이 옳다고 믿는 것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우쳐야 한다.
- 내 것, 내 생각,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과 분명하지 못한 분야를 버려야 한다.
- 육적인 정과 육적으로 하려는 마음을 깨뜨려야 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21)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9.29~10.5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순전 1-2 • 천국 19-23
- 헛되고 헛되니 1-3
- 심고 거두는 법칙 1-2
- 믿음의 분량 21-25
- 창세기 강해 89-93
- 요한일서 강해 37-39

**GCN TV설교**

- 내가 시행하리니 4-8 (이수진 목사)
- 은혜와 생명 2 (이수진 목사)
- 주님 앞에서 1-2 (이희선 목사)
- 명심 3 (신동호 목사)
- 영안이 열리려면 2 (김승신 전도사)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14,1 (홍구영 목사)

**간증 프로그램**

- 크리스천 투데이 40-45
- GCN 간증 스페셜 10-15
- 만민의 간증 1, 8, 10-12, 17

**해외성회 프로그램**

- 온두라스연합대성회 1
- 에스토니아연합성회 종합편

**찬양 프로그램**

- 찬양과 경배(3) 67-71, 81
- GCN 금요찬양 스페셜 10-15
- 만민찬양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 “좋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오세영 권사 (2대대 14교구, 기도제물연합회 회장)

저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하루를 마칩니다. 23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며 지내온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제물연합회가 조직돼 매일 밤낮으로 성전에 모여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 교회와 목자, 각 분야의 일꾼 등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현재 기도제물연합회는 특전대, 일반 기도제물, 직장인 기도제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는 연합회장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요.



##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즐겨하며

1988년 2월, 친구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당회장 이재복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우쳐가니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지요. 무엇보다 좋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마냥 행복했습니다.

매일 밤 9시부터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이 인도하시

는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참석하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설렘으로 가벼웠지요. 1991년부터는 직장인 기도제물에 소속돼 하루 일과를 마친 뒤 매일 저녁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앞서 40분 가량 기도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니 삶에 기쁨이 넘쳐 직장에서도 ‘스마일’로 통했지요. 1994년, 결혼 후에는 일반 기도제물로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되니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당시 기도제물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다 했지만 남편 사업이 어려워 지자 소극적이게 되고 주눅이 들어 있었지요.

어느 날, 당회장님께서 여선교회 모임에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를 발견하며 자아를 깨뜨려 나가는 작업을 시작했지요. 아울러 내 안에 있는 비진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좋은 설교들을 찾아 묵상하고 기도하며 버리기를 힘썼습니다.

## 성결을 사모해 성격의 틀을 깨뜨려 나가기

2006년 당회장님께서 감사로 서신 기도제물연합회 헌신 예배 때에는 ‘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열 번 이상 이 말씀을 들으며 제 자신을 점검하고 잘못된 마음과 생각들을 고쳐갔지요. 그동안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사명 감당했다는 것으로 인해 발견하지 못한 교만을 찾아내 버리고자 힘썼습니다.

2009년 기도제물연합회에서 당회장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 주셨지요. 당회장님께서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범죄하는 영혼들을 향해 애통해 하시며 얼마나 우셨는지 두 뺨에 골이 파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목자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며 성결을 더욱 사모하게 됐지요. 그 후 주보와 민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 설교를 보고 듣는 것을 더욱 사모하며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2011년 7월, 전국 기관장 교육을 통해 담대함이 부족하

고 마음에 있는 의를 표출하지 못하는 성격임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성격의 틀을 깨뜨려 나갔지요. 그리고 기도제물연합회 지도교사이신 이희선 목사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힘쓰며 매사를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할 때에도, 회원들을 위해 상담하거나 심방할 때에도 담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성격으로 바뀌 나갔지요.

## 영의 마음을 이뤄 능력 있는 기도로 사명 감당해

기도제물 사명은 제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매일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주 행복하네요. 기도제물은 평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기도를 하며 밤 9시부터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하루 6시간 이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주일에는 안내위원, 헌금위원, 국수 봉사 등으로 봉사하지요.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올리는 기도제목들이 응답될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해외성회를 떠나신 당회장님과 성회 일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제물과 원수 마귀가 줄다리기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서로 팽팽히 맞서는 것을 보고 더욱 부르짖어 불같이 기도하니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지요. 물론 성회는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 일은 기도제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됐지요.

지난 5월, 저는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사모한 결과 영의 마음을 이뤘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에 회원들도 더욱 소망 가운데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요. 기도제물은 기도로 하나님께 드러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있어야 하지요.

더욱 불같이 기도해 철저히 자신을 버리며 하나님 능력을 받아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기도로써 마지막 때 섭리를 이뤄가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영육 간에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남편 김형일 집사, 딸 애영 자매와 함께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진주만민교회 전북 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퍼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